

데스크 시각



채희중 정치담당 편집국장

국가 운영 미혼 남녀 연결 사이트, 시험관 시술 무제한 무료 지원, 임신·출산비용 전액 지원, 산후우울증 등 산모 정신치료 관리, 출산시 부부 모두에게 16개월 유급휴가, 12세 이하 아동 질병 치료시 최대 4개월 유급휴가, 3자녀 가정 승용차 구입시 1000만원 지급, 유치원부터 대학까지 무상교육, 아이날기 약속한 여성 4000만원 대출(자녀수에 따라 1/3에서 전액까지 탕감), 해외 거주 자국민 복귀 프로그램 운영 …….

혼인 줄고·출산 꺼리는 분위기

세계 여러나라들이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해 시행중인 출산 장려 정책들이다. 아이디어가 번뜩이는가 하면 '오죽 했으면'하는 짝한 제도, 엄청난 예산 투입은 기본이고 육아에 대한 전 사회적 참여 등 인구감소를 해결하기 위한 저마다의 고육책이다. 이 시책들이 실제 출산율에 얼마나 영향을 끼쳤는지 정확한 측정은 어렵지만 이들 국가들의 출산율과 혼인율이 의미있는 증가 수치를 보이고 있음은 사실이다.

우리 정부도 지난 16년간 수많은 출산정책에 280조원을 썼다. 하지만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출생아 수의 합인 합계출산율이 0.78명으로 세계에서 아이를 가장 적게 낳는 나라가 되고 말았다. 특히 2022년 출생아 수가 사망자 수보다 12만3800명이

출산을 높이려면 아이날기가 특권이어야

나 적었다. 이렇게 인구가 자연 감소되면서 대한민국은 지구에서 사라질 나라 중 단연 1순위가 됐다.

세계 최저 출산율을 극복하기 위해 최근 대통령 주재로 열린 '2023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회의'에서는 핵심 정책과 중장기 개혁 등 다수의 정책들이 발표됐다. 하지만 저출산의 직접적 원인과 근본적 문제점을 정확히 진단하면서도, 그 해법과 정책이 기존 정책을 업그레이드 하는 수준에 그쳤다.

젊은이들은 왜 아이를 낳지 않으려는 걸까. 오랜 기간 정부 연구 기관과 민간 영역에서 내놓은 저출산 원인 분석의 수많은 결과들은 기기막히게도 대동소이하다. 우선 비좁은 취업 관문에서, 결혼·출산의 전제인 주거비 마련은 더욱 힘들다. 정작 아이를 낳아도 맡길 곳이 부족하고, 막대한 양육비는 맞벌이 중 한 사람의 급여를 포기해야 할 정도다. 덧붙여 엄청난 사교육비는 살인적인 수준이다. 여기에 출산의 주체인 여성의 독박육아와 경력단절은 출산을 하락의 1차적 원인이다. 특히 우리 사회에 만연한 필요없고 과도한 경쟁 문화가 젊은이들의 행복감을 떨어뜨려, 아이날기를 포기하는 결정적 요인이라는 분석에는 현 정부도 문제 인식을 함께하고 있다.

이렇게 역대 정부를 포함해 현 정부까지 모두 저출산의 원인을 꿰뚫고 있는데, 출산율은 도리어 곤두박질치고 있다. 이는 청년 취업, 주택 문제, 양육 및 사교육 문제 등 출산을 가로막는 요소 중 단 한가지만이라도 제대로 해결한 정부가 없었기 때문이다. 나아가 시대와 가치관의 변화를 감지하지 못한 것이 패착이었다.

최근 통계청 조사 결과 10·20대 젊은이 중 절반 이상이 '자녀가 필요없다'고 답했으며, 국민(13세이상)의 절반이 '결혼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응답한 것으로 집계됐다. 여기에 젊은이들이 1순위로 꼽은 취업 조건이 미래·장래성에서 급여로 바뀐 점에서 보듯, 경제

(돈)가 현대 생활의 키워드로 자리한 시대적 맥락을 출산지원책에 반영하지 못한 점도 아쉬운 대목이다.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정책의 실수요자인 청년 세대의 요구를 반영하는 게 우선이다. 출산은 인류 입장에서는 송고한 행위지만 젊은 세대 입장에서는 지극히 개인적인 일이자 고비용에 무한책임까지 따르는 불안한 투자인 것이다. 이제 젊은이들에게 아기를 낳으라고 하려면 당위적인 설득으로는 부족하다. 최소한 그들이 출산후 지불할 경제적 부담보다 더욱 큰 기대 수익이나 혜택을 제공해야 한다. 경제적 부담이 젊은 세대가 출산을 꺼리는 주된 원인이기 때문이다.

더 파격적인 출산지원책 시급

우리 정부도 저출산 대책 예산을 매년 늘려 지난 한 해에만 무려 46조원을 투입했지만 출산율 문제를 해결한 프랑스의 한해 예산 150조원에 비교하면 30% 수준에 불과하다. 정치권에서 수시로 논됐지만 포퓰리즘을 의식해 유아무아했던 신생아 1인당 1~2억원 지급이나 아동수당의 월 지원액을 100만원으로 대폭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지난해 출생아 수가 24만명인 점을 감안하면, 출생아 당 1억원 지출시 총 24조원이 들기 때문에 재정 투입에 선택과 집중을 하면 재정엔 큰 부담은 되지 않는다. 국가 소멸보다 중요한 것이 어디 있겠는가. 출산·육아와 관련한 현금 지원액을 지금보다 대폭 늘려야 한다. 모든 분야의 예산을 줄여서라도 출산지원을 늘리고, 부족하다면 빚이라도 내야 할 것이다. 현금 지원을 꺼리는 정책을 버리고 지금보다 더 선심적이고, 더 퍼주어야 한다. 출산이 젊은이들만의 특권이 될 때라야 비로소 출산율은 올라갈 것이다. 그렇지 못할 경우 한국의 대통령이 세계 각국을 돌며 '어린 영양'을 하는 날이 올지도 모른다.

은폐칼럼



고성혁 시인

한 달 남짓 병원에 있다 퇴원했다. 세상에! 그동안 사방 천지에 벚꽃이 찬란하게 피었다. 기후변화를 탓하며 마음이 이룰던 끝, 산골짜기의 싱그러운 바람에 정신이 번쩍 들었다. 어쩔거나 봄이다. 봄이구나. 봄날엔 꽃 안개 아름다운 꿈속에서 처음 그대를 만났다. 길게 울려 퍼지는 트럼펫 소리. 참나무 우듬지 위, 벌이 앉긴 하늘을 짚었다. 그러다 다친 허리가 아파 그대도 누웠다. 돌이켜보노라니 내 삶의 희로애락이 뜬구름 같고 남겨진 삶마저 애잔했다. 누운 채 휴대폰에 글을 적었다. 병원에서 내려다 본 그 저녁 풍경이 떠올랐다.

1주일쯤 지나 겨우 화장실 길이 트였을 때 수액 거치대를 끌고 병실 끝에 섰다. 거리가 내려다보였다. 사람들이 바깥이라는 아름다운 미명(美名)으로 바뀌었지만 그랜 장화 없는 살 수 없는 험한 빈민촌이었다.

문득 육십 년 전 어느 봄날 풍경이 불쑥 다가왔다. 손살같은 세월. 그 시절 목포에는 띠개라는 곳이 있었다. 지금은 북방이라는 아름다운 미명(美名)으로 바뀌었지만 그랜 장화 없는 살 수 없는 험한 빈민촌이었다.

오래 전 어느 봄날

블록으로 거칠게 지은 막집들 사이, 양철과 판자로 열기설기 엮은 집들도 있었다. 근처 판단민촌은 얼마나 골목이 좁던지 사람들이 비켜 지나가지 못해 한 사람이 몸을 웅크리고 서 있어야만 했다. 공동 수도 하나에 온 동네 사람이 매달렸던 시절이었으니 어느 곳 사정이 더 나쁘고 할 수는 없었겠지만 그곳 '뒷개 뽕바탕'의 삶이 다른 곳보다 조금 더 고단하기는 했을 것이다.

어머니는 눈발에서 시급치를 잤다. 여름에는 먼 농촌 마을까지 농사일을 하러 다니거나 공사장 잡부, 혹은 다라이 공장의 심부름꾼으로 우리 두 형제를 먹였다. 아버지가 없었으니 어머니는 그 동네에서도 꽤 고달픈 축에 들었을 것은 뻔한 이치, 어머니를 생각하면 늘 가슴이 사무친다. 우리는 거기서 방 한 칸에 살았다. 초등학교 때부터 저녁밥을 해놓고 어머니를 기다렸다. 어느 날엔 아무 것도 없는 식량 자루를 만연자살 들여다보다 왕겨에 불을 붙여 풀무를 돌렸다. 물이 끓어도 어머니는 오지 않았다. 배고프다고 울던 동생은 개다리소반 위 말라붙은 감치 보시기 위에 얼굴을 묻고 잠이 들었다. 그날따라 더욱 늦은 어머니는 먼지 낀 수건을 털다 하얗게 말라붙은 동생 눈가의 눈물자국을 보고 울음을 터트렸다. 우리 이웃도 이웃의 이웃도 모두 그렇게 살았다.

그 동네 아이들은 동네 옆의 들밭에서 놀았다. 개편을 다진 허허벌판이었다. 김장 배추 수확을 끝낸 겨울이면 다음해 농사를 위해 인분을 뿌려 놓았다. 겨우내 삭은 똥 냄새가 풍겨올랐다. 들밭 옆으로는 유달산으로부터 시작된 큰 개천이 있었고 개천가 삼각주처럼 생긴 넓은 땅에 부랑아 보호소가 있었다. 봄이 가까워 무

렵 우리는 거기, 바림막이 보호소 담장 옆에서 가오리 연과 방패연을 낚았다. 하늘을 가로 세로 날던 연들의 군무가 마치 겨울 판타지처럼 선연하다. 풀로 유리가 루를 먹인 실은 마침내 누군가의 연실을 짚었다. 하늘 속으로 동실 떠오르는 연. 저 멀리 끊어져 날아가는 연을 잡기 위해 내달리던 아이들. 바로 그 들밭을 달렸다. 몇 달 숙성됐다고는 해도 거죽만 검은 썩은 똥이 어떤 늙은 울고 어떤 늙은 웃고.

그때 담장 옆에서 그 모양을 보고 있던 내게 무슨 소리가 들렸다. 신음소리 같았다. 부랑아 보호소 담벼락 안으로부터 들려오는 소리였다. 먹을 것 좀 주세요. 높은 담장엔 유리 파편까지 박혀 들여다볼 수 없었다. 역전이나 버스터미널에서 잡혀 온 아이들이 그 안에 갇혀 있었다. 우리 모두 봉고차에서 내리며 겁먹은 얼굴로 두리번거리는 아이들을 본 적이 있었다. 누군가 말했다. 배추 끝팅이라고 주랴? 그래, 형, 쥐! 그걸 먹으면 체득에 걸린다는 걸 알면서도 우린 누가 시킨 것처럼 배추 뿌리를 캐 담장 안으로 던졌다. 아직은 겨울 끝자락이었다.

알지 못하는 고통에야 비로소 떠오른 그때 아이들. 한 치 앞을 못 보는 삶이라도 생명을 귀한 것이다. 성남, 송파의 모녀들, 다음 소희, 김용균들, 성폭과 학폭 피해자들, 부당하게 대접받는 외국인 노동자들. 버스 기사의 800원 횡령은 유죄, 아들을 통해 받은 광상도의 50억 수수는 무죄. 그래서 T. S. 엘리엇(T. S. Eliott)의 사해는 아직도 유효한 것이다. 담장 너머까지 고루 벌이 들어야 진정한 봄이다.

기고

위기를 극복하고 수출의 봄을 준비하자

(25.2%), '물류난' (17.8%) 순으로 집계되었다. 중소기업들이 이러한 예로 상황을 타개하고, 수출 성과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이 필요한지 짚어 보고자 한다.

첫째, 수출 시장 다변화다. 광주·전남 수출입 통계에 의하면 광주는 북미, 전남은 중국으로의 수출 비중이 높은 편이다, 특정 수출선에 의존이 높아지면 경제는 물론 정치·외교 상황에 따라라도 부침이 발생한다. 안정적인 수출선 관리 차원에서 다변화를 위한 노력을 계속 해야 한다. 이를 위해 우리 지역본부에서는 올해 전략 시장으로 꼽히는 중동과 동남아시아 지역에 시장 개척단을 파견하고 온라인 수출 마케팅, 해외 바이어 초청 상담회 등에 주력 사업을 집중하여 지역 기업의 신규 시장 개척을 지원할 계획이다.

둘째, 수출 단계별 맞춤형 지원 사업 활용이다. 최근에 개최한 무역업계 간담회에서 '기업들이 산발적으로 수출 지원 사업을 이용하다 보니, 장기적인 전략이 부재한 채 지원 사업에 이끌려 다닌다'는 목소리가 있었다. 기업 수출 역량에 따른 로드맵을 설정하고, 단계별 지원 사업 시행이 절실한 대목이다. 우리 지역본부에서는 수출 지원 사업을 나열하기보다는 수출 전문가와 중소기업 간 일대일 소통을 우선시한다. 성장 단계와 수출 준비에 따라 맞춤형 사업을 제안하고, 활용 노하우를 함께 공유하는 멘토링을 하고 있다. 특히 정부·지자체에 여러 관련 지원 사업이 있다. 단순 물류비 비용

지원부터 물류사 요금 할인, 선박 확보, 현지 운송 지원, 물류 컨설팅 등 개별 기업 사정에 따른 다양한 맞춤형 지원이 가능하니 적극 활용하기를 바란다.

셋째로 수출 전담 인력 양성이다. 수출 초보 기업들은 수출 업무 비중이 크지 않다 보니, 다른 업무 담당자가 부업으로 무역 업무를 처리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수출 담당자가 수시로 바뀌거나 수출 실무 전문성이 떨어지면 실전에서 만나는 바이어들과 비즈니스 지속이 어렵게 된다. 수출성과 개선을 위해서는 기업 내부에 거래에 대한 결정권을 가진 전담 인력을 지정하고 수출 전문성이 축적되도록 장기적으로 육성해야 한다. 인력 채용이 어렵다면, 대표가 스스로 많은 시간을 투자해 수출 경험을 축적하고, 이를 바탕으로 젊은 인력을 직접 키워야 한다. 우리 지역본부 또한 이에 부응해 현장 실무 중심의 무역 아카데미 교육을 확대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처음으로 무역업계 구인난 해소를 위해 무역 전문 인력 채용 지원 사업도 기획하고 있다.

'풍신연등'(風訊鳶)이라는 말이 있다. 바람이 거셀수록 연이 높이 날 듯 역경 속에도 강해간다는 의미다. 우리 수출은 과거 IMF 외환위기, 금융위기를 거치며 오히려 세계 수출 점유율을 확대한 위기 극복의 전례가 있다. 우리 지역 기업들이 위기를 극복하고 수출의 봄을 일구어서 연말 무역의 날에 새로운 수출의 탑 수상자들로 만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社說

군 공항 이전, 시·도간 긴밀한 조율 필요하다

광주·전남 최대 현안으로 떠오른 '광주군(軍) 공항 특별법'의 국회 통과가 초읽기에 들어갔다. 광주시와 전남도 등에 따르면 국회 국방위원회 법률안심사 소위원회는 오늘 '광주 군 공항 특별법'을 상정해 심의할 예정이다.

앞서 '쌍둥이 법'으로 불리는 '대구·경북 신공항 특별법'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 의회의 소위를 통과한 바 있다. 이날 특별 법안이 국방위 심사 소위원회 통과되면 전체회의에 이어 본회의에서 최종적으로 의결된다.

하지만 군 공항 이전을 두고 시·도간 불협화음이 나왔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그제 출몰기자들과 가진 차담회에서 합평지역 일부 단계에서 군 공항 이전조건으로 내세운 광주와 합평의 통합 추진에 대해 "경북 구위군의 대구시 편입 결정 선례가 있으니 어려운 문제는 아니다"고 발언했다. 지방소멸시대에 지역 편입에 대한 언급은 '불씨'였다. 이에 대해 전남도는 "광

주시는 전남도와 사전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군 공항 이전을 추진하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전남도의회 또한 성명을 내고 "200만 전남도민의 의견을 무시한 채 합평군의 광주시 편입을 꾸민다는 광주시장은 즉각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국비 지원을 받는 '광주 군(軍) 공항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광주시와 전남도는 이전 후보지 결정 등 후속 조치를 나서게 된다. 이를 위해서는 "지역 상생발전"이라는 명제를 염두에 둔 시·도간 사전 협의와 조율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미래 100년을 내다보며 군 공항 이전 사업을 위해 서로 힘을 합해야 한다.

농촌 일손 부족 문제, 정부가 적극 나서야

본격적인 영농철이 시작되면서 농도인 인노동자의 고용 기간이 5개월에 불과하다 보니 실제적으로 농·수산물 가공 공장을 운영하는 기간보다 훨씬 증가 근로자는 외국 노동자의 인건비마저 천정부지로 뛰어 올라 농민들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농민들은 "농사를 포기해야하는 것 아니냐"며 호소하고 있다.

4일 대통령 소속 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와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주최로 곡성에서 열린 '농촌 일손 부족 및 예로 사향 청취 간담회'에서는 이런 상황을 반영하듯 농어민들의 하소연과 대책 마련 요구가 봇물처럼 터져나왔다.

농민들은 농촌 일손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외국인 노동자들의 경우 도농간 인건비 차이로 도시에서 일하는 것을 선호, 사람 구하기가 하늘의 별따기라며 도시의 유류 노동력을 농촌으로 유입시킬 대안을 마련해 달라고 말했다.

또 농어촌 현장에서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는 제도의 개선도 요구했다. 외국 인노동자의 고용 기간이 5개월에 불과하다 보니 실제적으로 농·수산물 가공 공장을 운영하는 기간보다 훨씬 증가 근로자는 외국 노동자의 인건비마저 천정부지로 뛰어 올라 농민들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그밖에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마련해야 하는 노동자 숙소의 경우 일반 컨테이너를 활용하지 못하게 하는 등 현실성이 떨어지는 사항에 대해서도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농어민들의 현장 목소리를 듣기 위해 간담회까지 개최한 정부는 부처간의 협의를 통해 농촌 인력난 해소를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현재 추진중인 계절근로자 고용 기간 연장을 하루 빨리 확정해한다. 또 외국인 노동자 숙식을 해결해주고 단기간 고용이 가능한 공공형 계절 근로제와 농촌인력증가센터 확대 등을 통해 농어민들의 고용을 해결해 주는 게 필요하다.

Advertisement for Kwangju Ilbo (光州日報) featuring the title '無等鼓' (Mueunggu) and contact information for the editorial department.



이동원 한국무역협회 광주·전남지역본부장

필자가 베트남 근무를 마치고 광주로 부임한 것은 한 파가 맹위를 떨치던 금년 1월이었다. 무더운 남국 날씨에 익숙해져 있다가 갑자기 추운 겨울 날씨로 환경이 바뀌다 보니, 그야말로 엄동설한은 온몸으로 느꼈다. 부임 즉시 지역 내 중소기업을 방문해 보았다. 겨울 추위 만큼 수출 현장의 엄동설한을 피부로 느낄 수 있었다. 어느덧 대화와 벚꽃이 절정인 봄이 왔다. 하지만 수출 환경은 여전히 추운 겨울이다. 글로벌 경기 둔화, 자금 중심 주의 등이 심화되면서 우리나라의 수출 감소와 무역 적자도 지속되고 있다. 지난 2월 광주·전남의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13% 감소한 47억 3000만 달러를 기록했다. 특히 전남은 지난해 10월부터 5개월 연속 감소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무역협회 광주·전남지역본부에서 최근 시행한 수출 기업의 무역 예로 사향 설문조사 결과 응답 기업의 절반 이상(68.1%)이 '원자재 가격 상승'을 1순위로 꼽았다. 이어 '전담 인력 부족'